

“행정체제 개편 더 미뤄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집권 2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세계, 노동, 복지, 외교, 대북 정책 등 기본 분야는 물론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 4대강 살리기, 선거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했다.

우선 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출구 전략과 관련,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기 확장 기조를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 부양책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를 주요 선진국들과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출구 전략은 지난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

■李대통령 집권 2기 국회 시정연설

“기업들이 이제 투자·고용창출 나설 때”

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에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의 원칙’을 근간으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유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국제질서의 수용자에서 창출자로, 또 세계 역사의 조연에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통해 국가 신인도와 브랜드를 물론 국가 품격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에 대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간곡히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을 통한 고용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나설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숙원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론'을 언급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지구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 사업인 동시에 지역에 일 자리를 창출할 '다목적 문화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 갈등 해소와 막대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할 선거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해 생산적 제도로 바뀌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및 부수 동의안의 처리 등에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무원 부패는 배신행위”

박준영 지사 ‘부정·비리 의혹’ 강하게 질책

징계 수위 높이고 본청 자체 내부감사 검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남도청 공직자들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강력히 징계하고, 감사실에 의한 내부감사 방침도 밝혔다.

박 지사는 2일 오전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1월 중 정례조회에서 “최근 발생한 공무원 비리 범죄를 보면 내가 얼굴을 들고다닐 수 없다”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을 열었다.

박 지사는 “오늘 정례회의를 앞두고 도청 공무원 중 누구도 최근 발생한 부정·비리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메모 한 장 없었다”면서 “그렇게 부패에 대해 둔감하냐?”



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동료의 부패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남도 공직자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며 “공무원의 부패는 동료 공직자와 가족, 국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지사는 일부 공무원의 몰상식적인 관행을 일례로 들면서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 둔감증’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간부들이 업무추진비 부족하다고 왜 실과 운영비를 가져

다 쓰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인성을 높였다.

박 지사는 “과거 공무원들이 생활비가 안 되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며 “비리가 생활비 때문이라면 나한테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 감사관도 개방형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감사실이 일선 시·군 감사뿐만 아니라 청 자체 사업에 대한 감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일을 결정하면 도민들은 여러분을 절대 믿지 않는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도청은 전체의 명예가 낮아진다”고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정연설 대독 鄭총리 ‘곤욕’ 野 의원들 거센 항의·야유 쏟아져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운찬 국무총리의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이 10·28 재보선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당선 인사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가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이 신중론 의사전행발언 대신 시정연설을 먼저 하겠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한 것.

민주당 우윤근,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가 선연단으로 나와 “순서대로 의사발언 뒤 연설하라”며 거세게 항의, 정 총리의 시정 연설은 차질을 빚었다.

김 의장이 “협조해 달라”고 말한 뒤 정 총리는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으나 야당 의원은 계속 저지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도 연단으로 나가 여야 의원간의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일단 연단에서 물러서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전원 집단퇴장, 시정연설을 보지 못했다.

정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한 뒤 진행된 의사전행발언에서는 미디어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도 벌어졌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84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서 대독하고 있다.

한나라당 손법규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매사를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을 비판한 뒤 “여야가 지상과 방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고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의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절차도 못지키는 국회란 이름을 쓰게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디어법 재논의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남도 해안선 2,500km 자전거로 달린다

전남도, 영광~광양 탐방코스 발굴 나서

전남 서해안 영광에서 남해안 광양까지 남도 해안선 2천500km를 잇는 자전거 탐방코스 개발이 본격화된다.

전남도는 30일 전남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자전거 타기 대중화를 위해 남도 해안선을 잇는 자전거 코스 발

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시·군 등과 공동으로 이달 말까지 영광군 흥농읍 원전 앞을 출발해 연륙교가 있는 섬을 포함, 광양까지 2천500여km 해안선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코스 발굴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 기간 동안 자전거로 달리길 좋은 해안길을 종점 발굴하고 코스 내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아름다운 어촌, 주요 어항과 어촌관광단지 등을 직접 방문해 어촌과 어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에 개발된 자전거 해안선 탐방 코스를 어촌과 연계한 테마별 코스로 개발해 안내책자 발간, 도 홈페이지,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 사이트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클린턴이 평양서 만난 인물은 가짜 김정일?

美 ABC '대역설' 소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들어 122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와 현장지도에 나섰다.

건강악화와 중병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상당한 공백기간을 거쳐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이 상당히 아위고 수척한 모습인 점을 두고 일부 북한문

제 전문가들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을 빼놓은 대역이 일부 행사에 대신 참석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미국의 ABC방송 인터넷판은 1일 서울발 기사에서 또다시 이러한 김 위원장의 대역에 관한 주장들을 정리해 보도하면서 지난 8월 북한에 억류됐던 여기서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짜 김정일'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한 일본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출신의 시게무라 도시미쓰 외세다대 교수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후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아위고 병약한 모습의 인물이 진짜 김 위원장이려면 8월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만난 사람은 대역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山水土風

3주 2회 방송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숨겨져 있는 도·농·어촌의 매력

-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이다.
-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3주 2회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3주 2회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3주 2회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3주 2회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10월 27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1월 3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1월 10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1월 17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1월 24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2월 1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2월 8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2월 15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2월 22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 12월 29일 방송되는 **산·수·토·풍**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30분짜리 프로그램이다.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노비타 비데 세일!!

사람이 모든 선물을 인기품!!

전국 최저가 판매

동리야 다른 비데 전문가를 만나면서 느끼는 실속 있는 온도 선택,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60

399,000원

219,000원

(부가세 포함)

비데프라자 ☎062)515-1144